

광주·전남 상장사 임원 연봉, 직원보다 최고 7배 많다

■ 직원-임원 1인당 평균 연봉 격차

기업명	직원	이사·감사	격차(배)
부국철강	4386	3억1700	7.2
다스코	3484	2억800	6
화천기공	5126	3억830	6
조선내화	4400	1억7500	4
금호산업	7318	2억8900	3.9
보해양조	4574	1억1860	2.6
대우플라스	5239	1억3020	2.5
DSR제강	4949	1억1040	2.2
광주신세계	6150	1억3700	2.2
대우에이텍	5559	1억1050	2
금호타이어	6000	1억1500	1.9
한전KPS	6067	1억570	1.7
금호에이치티	4356	6400	1.5
한국전력공사	7831	1억1260	1.4
세화아이엠씨	4273	3100	0.7
우리금융	9250	6300	0.7

(단위:만원)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자료:금융감독원>

16개사 지난해 연봉 비교

지난해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직원보다 많게는 7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연봉을 직원보다 더 많이 올린 곳은 금호산업, 한전KPS, 광주신세계, 한국전력공사, 화천기공 등 5개 기업이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집계한 광주·전남 16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지난해 이사·감사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으로, 직원 평균(5600만원)의 2.7배였다.

기업별로 직원과 임원 연봉 격차를 살펴보니 부국철강 임원은 한 해 평균적으로 3억1700만원을 받는 동안 직원은 4400만원을 받아 격차가 7.2배에 달했다.

다스코 이사·감사는 직원(3500만원)의 6배인 2억8000만원을 받았고, 화천기공도 임원 연봉(3억8000만원)이 직원(5100만원)의 6배였다.

연봉 격차는 조선내화 4배(임원 보수 1억7500만원), 금호산업 3.9배(“ 2억8900만원), 보해양조

이사·감사 평균 보수 1억5000만원...직원 평균의 2.7배
부국철강 ‘7.2배’...금호산업 인상률 11.7% vs 84.1%

2.6배(1억1900만원), 대우플라스 2.5배(1억3000만원), 광주신세계 2.2배(1억3700만원), DSR제강 2.2배(1억1000만원), 대우에이텍 2배(1억1100만원), 금호타이어 1.9배(1억1500만원), 한전KPS 1.7배(1억6000만원), 금호에이치티 1.5배(6400만원), 한국전력 1.4배(1억13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이사·감사 평균 연봉이 직원보다 낮은 곳은 세화아이엠씨(3100만원·0.7배)와 우리종합금융(6300만원·0.7배)이었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평균 연봉 격차는 2017년 3.9배(직원 4900만·임원1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2.7배로 줄어들었다.

3년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기업은 다스코(4배→6배), 금호산업 3.8배→3.9배, 한전(1.3배→1.4

배) 등 3곳이었다. 격차가 가장 많이 좁혀진 기업은 금호타이어(7.7배→1.9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 상장사 직원 평균 연봉은 8.2% (420만원) 오른 반면,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임원 연봉은 0.6% (90만원) 올랐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오른 곳은 16곳 중 12곳이었다. 연봉이 깎인 기업은 세화아이엠씨(-4.2%), 광주신세계(-2.4%), DSR제강(-0.6%), 화천기공(-0.1%) 등 4곳이었다.

이사·감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오른 곳은 16곳의 절반(8곳)으로, 금호산업(84.1%), 한전KPS(35.6%), 광주신세계(16.1%), 한전(15.0%), 화천기공(11.7%), 조선내화(11.5%), 대우플라스(11.4%), 금호에이치티(6.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임원 보수가 감소한 곳은 금호타이어(-45.5%),

DSR제강(-31.0%), 대우에이텍(-25.0%), 보해양조(-18.5%), 우리금융(-13.7%), 세화아이엠씨(-11.4%), 다스코(-9.6%), 부국철강(-0.3%) 등 8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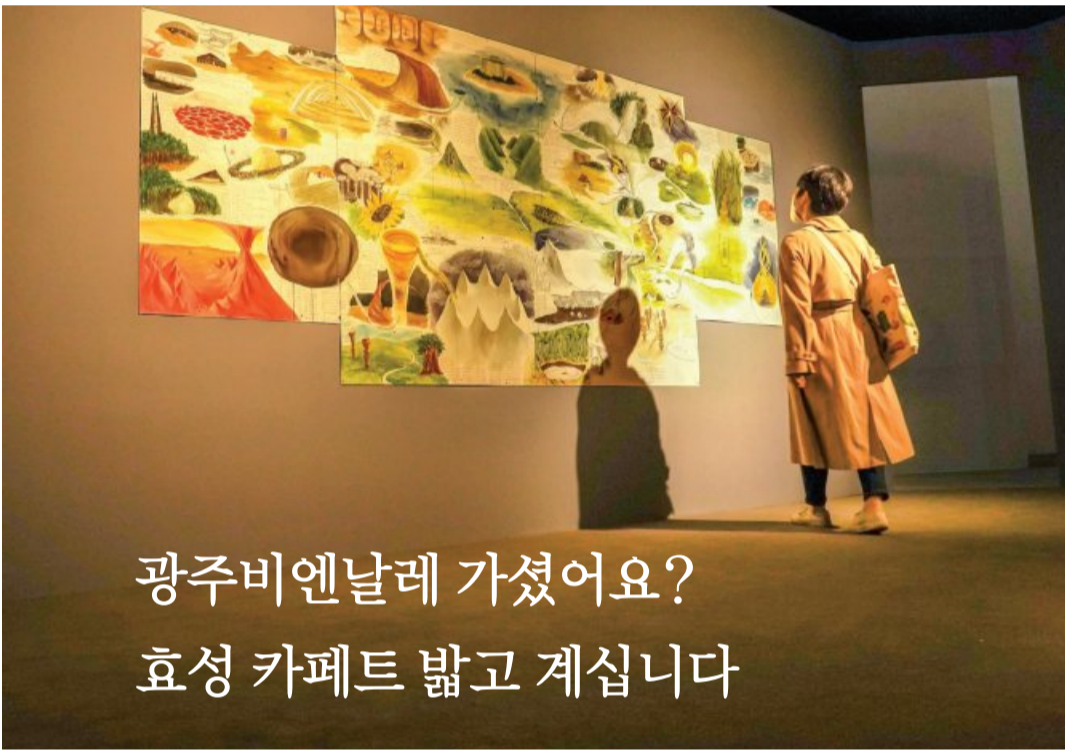
임원 연봉 증가율이 직원보다 높은 기업은 5개로 나타났다. 금호산업은 직원 연봉을 11.7% 올린 반면 임원 연봉은 직원의 7배에 달하는 84.1% 올렸다.

한전KPS(직원 13.3%·임원 35.6%), 한전(직원 2.8%·임원 15.0%) 등도 임원 연봉이 직원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신세계와 화천기공은 직원 연봉을 각각 2.4%, 0.1% 줄이는 동안 임원 연봉은 16.1%, 11.7% 올렸다.

최근 4년 동안 16개 상장사 직원 평균 연봉은 2017년 4900만원, 2018년 5100만원, 2019년 5100만원, 2020년 5500만원 등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이사·감사 평균 보수는 2017년 1억8800만원, 2018년 1억5400만원, 2019년 1억4900만원, 2020년 1억5000만원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 스완카페트가 설치된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첨단소재, 전시관용 ‘스완카페트’ 후원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5월9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전시관용 카펫을 후원했다고 6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카펫을 후원했다. 효성이 후원한 제품은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등 국내외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 전시에 설치됐다.

효성첨단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을 특수 가공한 뒤 고밀도로 생산한 울 카펫 1034㎡(313여평)를 제공했다. 카펫은 비디오 상영으로 소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시공간과 작품 특성상 바닥재가

필요한 곳에서 효용성을 발휘해 작가들과 전시관을 찾는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효성이 후원한 제품은 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 PU가 생산한 ‘스완카페트’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호텔, 웨딩홀, 오피스 빌딩 등 상업시설에 쓰이는 상업용 카펫과 자동차용 카펫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효성첨단소재가 후원한 카펫으로 보다 격조 높은 전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 “중기·서민 맞춤 지원 최선”

지역 중기 현장 잇단 방문 “코로나 위기 함께 돌파합시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공식 재선임 이후 첫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택했다.

광주은행은 송 행장이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전남 중소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임직원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첫날 송 행장이 방문한 기업은 고흥 스티로폼제품 제조업체 ㈜효경(대표 최인호)과 광주시 광산구 용동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신테크(대표 김종식)이다.

이튿날에는 목포 수상 운송업체 씨월드고속웨리우(대표 이혁영)와 광주시 서구 쌍촌동 가전제품 소매업체 ㈜태등(대표 백형식), 광주시 북구 운암동 냉난방장치 도매업체 ㈜만주배관센터(대표 정은영)를 찾았다.

송 행장은 이들 대표와 직원을 차례로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현황을 살펴며 적기의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연초 첫 행보로 중소기업 방문을 택하며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왔다. 고흥·산성위지지역에 지정된 영암 대불산단과 태풍 피해업체와 농가, 코로나19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 등을 차례로 찾았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금융지원은 지난날 말 기준 2만4608건, 1조335억원에 이른다.

그는 “지역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용동 ㈜대신테크를 찾아 김종식 대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 전진해나가며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중서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7.08 (+6.25)
↓ 코스닥	968.63 (-1.14)
↓ 금리(국고채 3년)	1.181 (-0.021)
↓ 환율(USD)	1119.60 (-8.10)

우수콘텐츠잡지 2021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 재생, 삶의 이야기 “살아난다, 골목길”

- 개성 입은 광주·전남 문화 골목길
- ‘마을이 미술관’ 양림골목비엔날레를 가다
- 그 골목 들어서면, 영화 감성 살아나요
- 꼭 가보고 싶은 전국 골목여행지 베스트 3

문화 화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문화 트렌드

문화는 품은 건축물

거장의 조형언어로 구축한 공간 대전 이용노미술관

클릭, 문화현장

아담하지만 파워풀한 기획력으로 사랑받는 ‘정읍시립미술관’

예향이 만년 이 사람

마운드 아쉬움 뒤로하고 또 다른 야구 인생 걷는 박지훈

에향 초대석

시(詩)의 길 40년, 시집 출간 광재구 시인

“하루 8만 6400초가 다 시죠”

우리 땅 우리 문화

고졸한 자연석 성곽 고창읍성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이슈 ‘이슈 우하 전집’ “한 마리이긴 하지, 하지만 사자야”

문화 화제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BTS의 빌보드 저력

문화 트렌드

K드라마 흥풍에 일본서 한국 음식 열풍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함평

생명이 약동하는 너른 처지, 강평 자연여행

무성한 마을숲과 절의의 역사 - 함평전지향우, 나비밭, 단호박